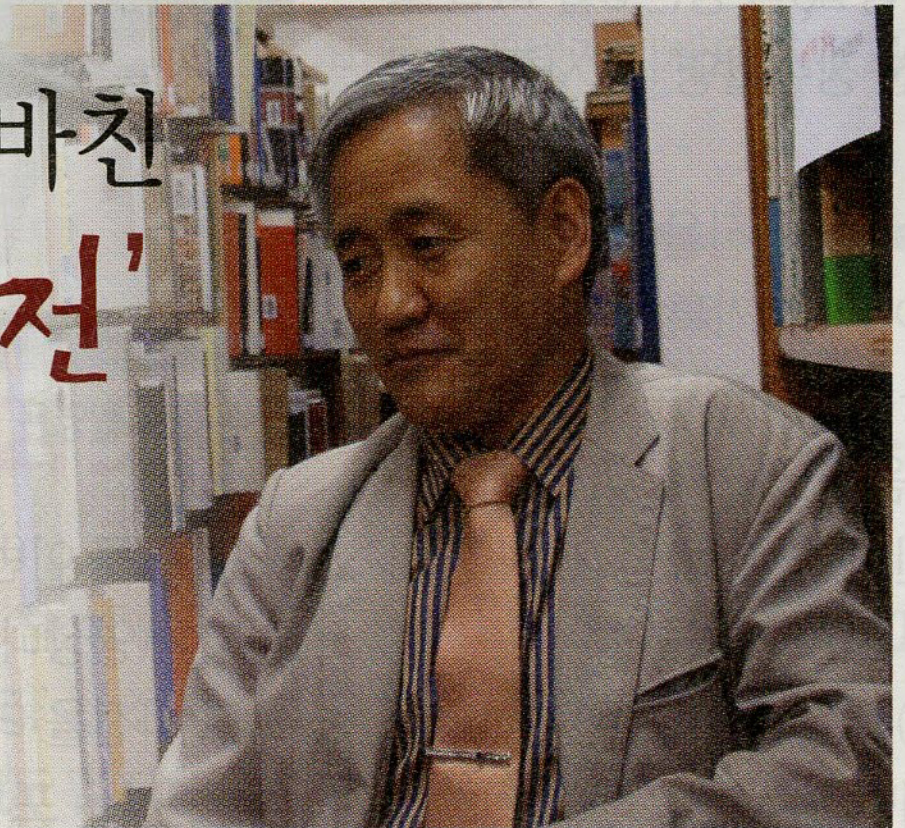


우리동네이사람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



미술자료 수집에 평생 바친 '살아있는 미술사전'



“밤하늘에 1등별만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2등별, 3등별이 함께 빛나는 것처럼 미술사에서 저평가된 작가들의 미술자료도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40년 이상, 도록과 팸플릿 등 미술자료 수집에 인생을 바쳐 ‘살아있는 미술사전’으로 불리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

그는 2013년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금성출판사 p.101)에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다-김달진(아키비스트)’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아키비스트’란 작품 및 작가, 전시미술품에 대한 기록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3 때 경복궁에서 ‘한국근대미술 60년 전’을 보는데 박수근, 이중섭처럼 유명한 작가들의 자료는 찾기 쉬웠지만, 동시대의 덜 알려진 작가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웠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 김 관장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심했고,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5년, 가나화랑에서 6년간 자료실 업무를 담당했다.

2002년에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만들었고, 종로구에 있던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2010년 10월 창전동으로 이전하면서 부설도서관 격인 한국미술정보센터도 함

김달진 관장의 꿈은 대한민국 미술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도서관, 기록관리, 박물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께 개관했다.

박물관에는 40년 동안 수집한 2만 2천권 이상의 자료가 있고, 김 관장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서 가져오지 못한 자료도 4.5톤 트럭만큼이나 있다.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규모의 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다.

전시실 유리 아래로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빛바랜 도록들이 우리나라 미술의 근현대사를 대변하고 있는 자리. 그러나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문을 연 한국미술정보센터의 전세기한이 내년 9월 말로 만료된다. 지원이 끊기고 재원확보가 안 되면 이곳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뜻깊은 지원이 절실하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무료) ☎ 730-6227

객원기자 전흥진